

완주 으뜸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015년 5월 발행 이후, 1년 6개월 동안 9억3400만원 판매

지난 2015년 5월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완주 으뜸상품권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 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화된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16일 완주군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완주 으뜸상품권의 판매액은 9억 3,44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발행 첫 해인 2015년 3억2,530여만원에 이어, 올 한 해 동안 6억900만원이 판매됐다.

10억원에 육박하는 지역자금이 으뜸상품권을 통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 노릇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화폐의 일종인 완주 으뜸상품권은 역외 소득유출을 막아 지역의 경제 자립에 기여하고, 부의 극단적 편중과 화폐순환의 정체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오직 완주군 내



1050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으뜸상품권의 1만원권, 1000원권 등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완주군 내 소재한 모든 농협에서 액면금액의 3%를 할인 판매한다.

완주군은 완주 으뜸상품권의 판매 확대를 위해 할인을 조정, 유통기한 조정,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입 등의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은 " 으뜸상품권은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의 외부 유출을 막는 보호막이자, 자원의 내부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라며 "지역경제가 건전할수록 삶의 질도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으뜸상품권 사용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 적상파출소, 가출 자살기도 여성 구조

무주경찰서(서장 나영민) 적상파출소(소장 정상인)에서 부부싸움 후 자살을 시도한 김모(56세, 여)씨를 적극적으로 구조한 사실이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12월 9일 오후 2시경 무주군 적상면 내창 마을이장이 "마을 주민이 심하게 부부 싸움을 하고 가출을 하면서 약을 먹고 죽겠다는 말을 했는데 위치 파악이 안된다"는 긴급한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적상파출소 정승준, 송라규 경위, 이대환 순경은 신고를 받고 마을을 방문해 이장과 남편을 만나 위험성을 확인하고, 긴급함을 인식했다.

경찰은 가출한 김모씨 위치 추적을 위해 남편에게 계속 설득했으나 "가출인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라"면서 신고를 취소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위치추적에 동의하지 않아 찾기가 어려웠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주민 등에게 협조를 구했다.

적상파출소 정승준, 송라규 경위와 이대환 순경은 4시간 정도 신고자와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 주변지역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가출 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핸드폰 통화를 시도했지만 가출인 또한 술이 만취돼 위치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50분경 무주읍내서 위치를 확인하고 긴급 출동해 잠정방 뒤 야산공터에서 가출인 김모(56세, 여)씨를 발견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현장에 있던 제조채 등을 수거하고 119구급대와 마을이장, 주민들에게 인계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했다.

구조를 신고한 내창 송덕현 이장은 "경찰이 포기하지 않고 가출 인을 끝까지 수색해 귀중한 생명을 구해주었다"며 감사의 말을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개인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가구당 50% 내... 용담호 상수원 보호 기대

진안군은 공공하수 미처리구역에서 생활하수 및 분뇨 등의 미처리로 인한 용담호 및 섬진강 상류지역의 수질 오염 차단을 위해 개인정화조 청소 용담호 상수원 보호 기대

개인정화조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 3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의 고령화 및 세대원의 감소 등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공공하수처리구역의 확대 노력과 진

안군 행정의 꾸준한 지도·관리에도 불구하고 개인정화조 청소 실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하수처리구역의 하수도요금보다 처리수수료의 금액이 배 이상 높아 주민 부담이 큰 점도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화조 내부청소 기간 경과로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광역상수원과 지방상수원으로 각각 사용되는 용담호와 섬진강 상류의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 6월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2017년에 5,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민홍보와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화조 청소를 실시하는 세대주에 대해 세대별 청소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식당, 제조업 등의 영업시설과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세대원 감소 등에 따른 청소가 어려운 개인주택의 정화조 시설만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실시

무주군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이 지난 16일 무주덕유산리조트 타일호텔에서 개최됐다.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비롯한 수만 구조대와 전문구조반, 재난구조협회, 응급복구 장비지원반, 산악구조대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교육은 자연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참석자들은 중앙 EFR교육센터에서 초빙한 전문 강사로부터 지

진, 재난 대비, 심폐소생술과 기타 응급처치교육을 받았다. 또한 방재단의 임무와 역할, 방재단으로서의 사명감에 대해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오늘 이 시간은 자율방재단으로서 내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무주군 6개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분야에 걸쳐 활동을 하며 군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역할과 임무, 활동요령 등을 공유하고 있다.

황정수 군수는 "방재역량은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실천해나갈 때 제대로 발휘가 되는 것"이라며 "군에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고 여러 부분은 지역을 살피고 이웃들을 보듬으며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에 어울리는 선진안전문화를 정착시키자"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박성일 완주군수 '산림환경 대상'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기반 구축 공로 인정



박성일 완주군수(사진)가 산림환경포럼(운영위원장 김현중)이 수여하는 2016년 '제12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자치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16일 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은 2005년부터(사)한국산림환경보호협회와 산림관련 언론이 공동 주관으로, 한 해 동안 산림의 환경기능을 증진시키는 데 남다른 노력을 한 인물 및 단체에게 주어진다.

산림환경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시키는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대내외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산림환경포럼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부터 공모를 통해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은 후 엄정한 심사를 거쳐 부문별 수상자를 결정했다. 자치부문 수상자로 선정

된 박성일 군수는 전체면적 73%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산림을 통한 산림경영, 녹지조경, 산림보호, 산림휴양, 산림소득사업 등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힘써온 점이 큰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동안 생태적·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고 역사성이 있는 산림자산을 국가 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림바이오파스마스터운을 조성하여 로컬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산림부산물과 폐목재를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박 군수는 이 외에도 산림휴양과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자연휴양림 테마시설, 산림교육센터, 치유의 숲·상생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임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임산물 산업 기반조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화상담부
063-430-2951

무주군의회 정례회 폐회

무주군의회(의장 유승열)는 지난 15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하여 2016년 총 6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매년 연말에 열리는 정례회는 의회의 1년 회기 중 가장 중요한 안건처리와 활동이 이뤄지는 시기로 군정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심도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요구사항 85건, 처리 요구사항 82건, 건의 41건 등 군정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방향을 주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의회 정례회 폐회

진안군의회(의장 박명석)는 지난 11월 7일부터 4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 234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6일 폐회하고 올해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4차례에 걸쳐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했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에서는 11월 9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같은 달 17일, 맑은물사업소까지 군정 전반에 대해 꼼꼼하고 정확한 감사를 추진하여 총 99건을 지적하고 32건의 시정, 44건의 개선, 23건의 검토를 요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무주군은 제249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관련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무주덕유산리조트(민선하우스, 콘도라 탐상장)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는 진리북도와 무진장소방사 관계자, 무주군 지역자율방재단과 안전모니터봉사단, 리조트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군에 따르면 리조트 방문객들과 상인들에게 스키장과 눈썰매장 이용 안전수칙을 홍보했으며, 폭설과 설해 등 겨울철 자연재난 관련 정보를 비롯해 내 집(집포) 외 눈치우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실천해야 하는 내용들을 공유했다. 또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들을 신고하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알리며 안전문화 정착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함께 했던 하성용 부군수는 "폭설과 한파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취지가 담겨 있던 행사였던 만큼 관련 정보들을 충분히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무주 실현을 위해 캠페인 확산에 주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목표설정 통한 성과관리

장수군은 올해 초 성과관리 시스템을 본격 도입해 체계적인 실적 관리로 성과 지표 130개, 실행과제 278개를 개발, 목표설정 통한 분야별 성과로 끌어 올렸다고 밝혔다.

2016년 주요실적은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총88건 2,011억원(17년 국도비 282억원 확보)을 확정해 2016년에 비해 두 배를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특별교부세도 장수군 소각시설설치, 장수농공단지 앞 장전로 확포장 등 총 8건 21억원을 확보해 전년도(6건 19억원)에 대비 2건(2억원)을 더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관표창 등 수상분야로 2016년 도로명주소 업무표창(국무총리), 세출절감·세입확대 우수지자체(행정부) 등 총 29개 분야를 수상했으며 4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장수=고관호 기자